

의료일원화, 의대 정원 확대 대안으로 거론

김륜희 기자 poetry_5989@khu.ac.kr

의과대학(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정치권에서 의료일원화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우리학교 한의과대학은 의료일원화는 성급하다고 지적했다.

의료일원화란 의학과 한의학의 제도적 통합이다.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방식은 한의과대학 폐지 후 그 정원을 의대로 옮겨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지난달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의사 정원 확대 대안으로 의료일원화를 언급하며 한의과대학을 두고 있는 10개 대학의 관련 정원 632명을 의대 정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지난 달 25일 국회 보건복지위 종합 감사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의대 정원 확대에 의료일원화를 함께 추진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학교 한의과대학 이재동(한의학) 학장은 의사 수 부족 문제의 해결책으로 한의사의 공공 의료 및 필수의료 분야 참여를 제시했다. 또한 지금 논의되는 의료일원화에 대해 정부가 미래 의료 방향을 더 넓게 생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학장은 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의사 수 부족이 아니라 공공보건의료, 필수의료 영역에 의사가 가지 않으려는 것”이라며 “의사 수 부족의 해결책으로 한의과대학을 폐지하는 것이 아닌 한의사도 공공의



한의과대학은 의료일원화에 대해 아직 성급하다고 의견을 표했다. (사진=김륜희 기자)

료, 필수의료 분야에서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일원화는 한의사가 필수 의료, 공공의료 인력으로 역할을 하며 이뤄질 수 있겠지만 단순히 한의과대학 정원을 의대로 옮기는 방식의 의료일원화는 앞서가는 이야기”라며 “한의과대학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국가의 큰 자산을 없애는 것이다”고 의료일원화 논란을 일축했다.

다만, 한의사가 필수 의료 자리를 맡게 되면 환자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에 이 학장은 “이는 양의사들의 이권 논리”라며 “응급환자 판단과 팬데믹 상황에서의 진단은 한의사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우리학교 한의대 학생회도 의료일원화에 선을 그었다. 한의과대학 박진우(한의학 2020) 학생회장은 “한의학과의 양의학은 대체 관계가 아닌 동등한 의료분야”라며 “의사 수 부족으로 한의대 정원을 의대로 이동한다는 논의는 한의계에 매우 폭력적이고 일방적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한의학은 국제적 전염 질환에 대한 진단 방법과 치료 체계를 갖췄고, 현재 커리큘럼상 현대 과학에 맞는 의학 과목 수강이 필수”라며 한의사의 필수의료 분야 참여에 힘을 보탰다.

허광혁(한의학 2020) 씨는 “의과와 한의과의 학문적 교류가 부족한 상태에서 무작정 의대로 통합하자는 의료일원화는 한의과의 위축을 일으킬 것”이라며 우려를 드

러내면서도 “한의계 내에서도 의료일원화에 맞춰 개편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며 “다가올 의료일원화를 위해 한의대 커리큘럼이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의사의 필수의료 분야 참여와 관련해서는 한의과대학 학생회와 같은 입장을 보였다. 허 씨는 “의료법상 의료인인 한의사가 필수, 공공보건의료에 배제된 것은 보건 인력의 큰 낭비”라며 제도적 차원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동시에 “한의과대학에서도 학생이 국가 보건사업과 필수의료에 필요한 역량을 더 갖추도록 교육제도와 과정을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학 최초 천원의 점심밥

임주양 기자 0816wndid@khu.ac.kr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이어 ‘천원의 점심밥’ 사업이 양 캠퍼스에서 진행된다. 시기는 이달 중순이며 대학 중에서는 최초다.

천원의 점심밥 사업은 대학생에게 아침밥을 1,000원에 제공해 학생의 식비 부담을 낮추고 쌀 소비를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됐던 천원의 아침밥 사업의 연장선이다.

지난 8월, 한균태 총장은 여러 동문을 만나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위한 ‘후배 사랑 학식 릴레이 후원’에 동참해 주기를 요청했다. 이에 이봉관(상학 1966) 동문, 박종복(경제학 1976) 동문, 문주현(회계학 1983) 동문, 차정훈(중어중문학 1983) 동문이 총 6천 5백만 원을 후원했다.

후원 기부금은 오는 11월 중순부터 12월 기말고사 기간까지 약 6주가량 천원의 점심밥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사업 기간 동안 서울캠퍼스(서울캠)는 청운관 식당에서 하루 500명을 대상으로 1,000원 식단을 제공한다. 국제캠퍼스에서는 학생회관, 제2기숙사에서 1,000원 식단이 제공된다.

서울캠 대외협력처 정이나 차장은 “후배를 응원하는 선배의 마음을 학식 지원으로 전달해 경희인으로서의 자긍심과 나눔의 의미를 피부로 느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3. 경희전문대 공개관측회

MEETING IN THE MIDNIGHT

2023. 11. 21. TUE

19:00 - 22:00

주관: 경희전문대, 경희대학교 우주과학과

QR CODE

천체관측

주망원경 견학

대중강연

MEETING IN THE MIDNIGHT

2023 공개관측회 프로그램 일정표

시간	주망원경 견학	소구경 망원경	플라네타리움	공작교실	천문우주 과학강연	영상촬영
19:00-19:10			1회			
19:10-19:20			2회			
19:20-19:30			3회		국보 :현악 4중주	
19:30-19:40			4회	상	대중강연1 (이주원 작가)	상
19:40-19:50			5회	시		시
19:50-20:00			6회	시		시
20:00-20:10	상	상	7회	영	대중강연2 (문용재 교수)	영
20:10-20:20	시	시	8회			
20:20-20:30	시	시	9회			
20:30-20:40	시	시				
20:40-20:50	영	영				
20:50-21:00						
21:00-21:10						
21:10-21:20						
21:20-21:30						
21:30-21:40					퀴즈퀴즈 (이성환)	
21:40-21:50						
21:50-22:00						